역사 기말 두 장 정리

IV. 조선의 성립과 발전 · 교과서 114~141 · 학습지 No.6~10 · 문화(130~132만) · 11/11(수) 3교시 · ★ = 선생님 별표

No.6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

114~117쪽

O·X 12세기 이후 화려한 무늬의 청자는 '순청자' → × (상감청자, 순청자는 11세기) · 1377년 청주 흥덕사,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'직지' → O

건국 세력: 이성계와 **급진파 사대부**

1388	**위화도 회군** → 이성계의 권력 장악(정치·군사) → 정도전 등 급진파 사대부와 개혁 추진
1391	**과전법**으로 경제 장악 — 전·현직 관료 대상, **경기** 지역 토지에 한해 수조권 → **국가 재정 확보**, **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** 마련
1392	정몽주 등 **온건파** 사대부 제거 → 새 왕조, 국호 **'조선'**(고조선 계승). 수도는 아직 **개경**
1394	**한양 천도**: 한반도 **중앙**, 남쪽으로 **한강**이 흘러 육로·수로 교통 편리, **산**으로 둘러싸여 외적 방어에 좋음

수조권: 토지의 조세를 국가가 아닌 관리·관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리

통치 이념: **성리학**으로 문물·제도 정비. **정도전**이 **재상 중심** 정치와 **왕도 정치** 강조

건국 의의: 신진 사대부 집권 → 가문보다 개인의 **유교적 지식과 교양** 중시. 불교 위축, 유교 윤리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전반의 중심

왕	업적
태종 (이방원) **6조 직계제**	두 차례 **왕자의 난**(태조 → 정종 → 태종)으로 왕위, 왕권 중심 정치 → 공신·왕자의 **사병 혁파**(군사권 장악), **호적 조사·호패법**(인구 파악, 세금 징수·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)
세종 **의정부 서사제**	유교 정치 실현, **집현전**(학문 연구·정책 자문), 의정부 권한 강화, **경연**으로 정책 토론, 세금 제도 정비(백성 부담 경감), **훈민정음** 반포, 국가 의례 정비
세조 (수양대군) **6조 직계제**	단종을 몰아내고 왕위(세종 → 문종 → 단종 → 세조), **집현전 폐지·경연 중단**, 의정부 권한 축소, **직전법**, 『경국대전』 편찬 시작
성종 **의정부 서사제**	**홍문관**(집현전 계승), 경연 재개, 의정부 권한 강화, **『경국대전』 완성** → 유교 중심 국가 통치 질서 확립

과전법 vs 직전법: 과전법(1391, 건국 전) 전·현직 관료에게 경기 토지 수조권 → 직전법(세조) 과전 부족 → **현직** 관리에게만

	의정부 서사제	6조 직계제
보고	6조 → 의정부 → 왕	6조 → 왕 (직접)
왕권	삼정승이 검토·반려 → **왕권 견제**	걸림돌 없음 → **왕권 강화**
왕	세종, 성종 이후	태종, 세조

No.7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

118~121쪽

학습지 빈칸: 관찰사 · 봉수제 · 성균관 · 교린 · 최윤덕 · 이종무

중앙 정치 제도

의정부: 3정승(영·좌·우의정)이 합의해 정책 결정·보고하는 **최고 기관** · **6조**: 이조 인사 / 호조 재정 / 예조 예식·외교 / 병조 군사 / 형조 법률·형벌 / 공조 공사

승정원 왕명 출납하는 비서 기관(**승정원일기**) · **의금부** 반역죄 등 큰 죄 · **춘추관** 역사서 편찬·보관 · **성균관** 유교 교육 최고 국립 교육 기관 · **한성부** 한성 행정·치안

★ **3사**(사헌부·사간원·홍문관): 권력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막고 **왕권과 신권의 조화·균형** — **사간원** 국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움 / **사헌부** 관리의 잘못 감찰 / **홍문관** 정책 자문·경연. 국왕이나 고위 관리도 3사 활동을 함부로 막을 수 없음

지방 행정 · 군사 · 교통

전국 **8도** → 아래 부·목·군·현 · **관찰사** 각 도에 파견, 수령 지휘·감독 · **수령 모든 군현**에 파견, 행정·사법·군사 총괄 (고려는 수령 없는 속현이 많았음) · **향리** 수령의 실무 보좌 · **유향소** 지방 양반 자치 기구 → 수령 자문, 향리 비리 감찰

군사: 16~60세 **양인 남자**. 중앙 **5위**가 한양·궁궐 수비, 지방은 **병마절도사**(육군)·**수군절도사**(수군)가 지휘

교통·통신: 물자 수송·통신을 위해 **역참**과 **원** 설치 · **봉수제** 위급한 상황을 알리려고 정비

교육 · 관리 등용

서당 기초 유교 지식 · **4부 학당**(수도)·**향교**(지방) 유교 경전 · **성균관**(수도) 최고 교육 기관

과거: 생원·진사과(**소과**) → 문과(대과) → 문관 / 무과 → 무관 / 잡과(역과·율과·의과·음양과) → 기술관. **천민이 아니면** 응시

음서: 고려보다 범위 축소 — **2품 이상** 관리의 자손(고려 5품 이상). 과거에 합격 못 하면 낮은 관직에 머무름 · **천거**: 관리의 추천으로 선발 → 음서 줄고 **과거 비중** 커짐

사대 · 교린

사대(명): 해마다 사신·조공품(말·인삼) ↔ 답례품(약재·서적). 경제적·문화적 **실리** → 선진 문물 수용, 왕권 안정, 국제적 지위 확보

교린(여진·일본) = 회유책 + 강경책

	회유책	강경책
여진	국경에 **무역소** → 제한적 교류 / 귀화한 지배층에 관직·토지	약탈 → 세종 때 **최윤덕 4군**(압록강), **김종서 6진**(두만강) → 오늘날 국경선
일본	대마도 도주 요청 → **3포**(제포·부산포·염포) 개항, 일본인 거류·제한 무역	왜구 침략 → 세종 때 **이종무**가 왜구 소굴 **대마도** 토벌

시암(태국)·자와(인도네시아)·**류큐**(오키나와): 토산품 ↔ 조선은 문방구·불경·유교 경전

No.8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

122~127쪽

왕 순서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 경영정순헌철고순 — 세조 → 성종 → 연산군 → 중종 → 인종 → 명종 → 선조

훈구(한명회): 건국·**세조** 왕위 등극을 도운 공신, 국가에서 많은 토지·노비 → **왕실과 혼인**, 대를 이어 권력 독점 → 왕권 제약

사림: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·교육, 온건파 **정몽주·길재** 학통. 도덕·의리의 **왕도 정치**와 **향촌 자치**. **성종**이 **훈구 견제**하려고 **김종직** 등 등용 → 주로 **3사 언관직** → 훈구 비판 → 갈등 심화

★ **사화 — 순서 무·갑·기·을 · 배경 · 과정**		
① **무오**	연산군	연산군과 훈구가 **사초**에 실린 김종직의 「**조의제문**」을 문제 삼아 사림 제거 (의제·항우 이야기에 빗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일 비판)
② **갑자**	연산군	친어머니 **폐위** 관련자 제거 → 훈구·사림 모두 피해
③ **기묘**	중종	**중종반정**(훈구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움, 반정 = 바른 상태로 돌아감) → 조광조 개혁 → **중종이 급진적 개혁에 부담** → 조광조 등 사림 제거 (만화: 나뭇잎의 '**주초위왕**')
④ **을사**	명종	**외척** 간 권력 다툼(인종 외척 대윤 ↔ 명종 외척 소윤) → 사림 피해

★★ **조광조의 개혁**: 중종이 훈구 견제하려고 등용 → **왕도 정치** 내세워 개혁 ① **소격서 폐지**(도교 행사 기관) ② **현량과** 실시 ③ 부당하게 공신이 된 사람들의 **자격 박탈** 주장

만화 순서: 무오사화 → 갑자사화 → 중종반정 → 기묘사화 → 을사사화 → 붕당의 발생

서원: 사화 뒤에도 사림이 향촌 중심으로 세력 확대 → 곳곳에 설립. 기능 **덕망 높은 유학자 제사 · 성리학 연구 · 지방 양반 자제 교육**. 의의 성리학 이념 보급, 정치 여론 형성

향약: 이웃끼리 서로 돕는 향촌 풍속 + 유교 윤리 = **향촌 자치 규약**. **중종** 때 사림이 중국 『**여씨향약**』 번역·보급 → **이황·이이** 등이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군현·마을 단위 시행. 의의 농민을 성리학 윤리로 규율, 사림 영향력 확대

사림 집권: 서원·향약으로 세력 강화 → **16세기 후반 선조** 때 주도권 · **공론**: 언론 담당 **3사** 관리

가 주도, 재야 사림은 서원 활동·**상소**로 참여

붕당: 정계에 남은 **훈구 처리 문제**로 갈등 → **이조 전랑** 자리 다툼 → **동인**(김효원, 이황의 제자들) / **서인**(심의겸, 이이의 제자들)

사림의 계보: 정몽주 → 길재 → 김숙자 → 김종직(조의제문) → 정여창·김굉필·김일손(무오사화) → 이언적·조광조·서경덕·김안국(기묘사화) → 성혼·**이이 = 서인** / **이황**·조식 = **동인**

★ 문화

130~132쪽 체크만 (129·133쪽 제외)

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(태종):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 중 **현존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**. 아프리카·아라비아·유럽, 중국이 가운데 크게(**중화 사상**)

『조선왕조실록』: 태조~철종 **25대 472년**, **연월일** 순 기록, **1997**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

천상열차분야지도: 하늘을 **12구역**으로 나눠 별자리 위치·모양을 표현한 천문도. **천상** 하늘의 모습·천문 현상 / **열차** 별자리를 12구역으로 펼침 / **분야** 하늘 구역을 땅의 구역에 빗댐 / **지도** ~를 나타낸 그림

그림 ① **24절기** 절기마다 해 질 녘 떠오르는 별자리 이름 → 농사 시기 ② **황도** 태양이 움직이는 길 ③ **별자리** 북극성·북두칠성 등 한성 하늘 ④ **은하수** 별들이 무리 지은 곳 ⑤ 제작자 이름·제작 경위·별자리 정보

칠정산(세종): 실제 천문 관측 기록 토대 **독자적 역법서**, 일출·일몰·일식·월식을 **한성 기준**으로 계산

『삼강행실도』(세종): 군신·부자·부부 인륜의 모범 사례를 **그림과 글**로 → **성종** 때 **훈민정음 번역** 추가. 자료 『세종실록』: 백성이 인륜을 모름 → 그림과 글로 만들어 나눠 주어 교화 · 중국 진의 효자 **왕상**(위 훈민정음, 아래 그림). 보급 이유 → 한문 모르는 백성도 쉽게 보고 이해 (교과서 질문, 자료 바탕 예시)

No.9 왜란의 발발과 극복 134~137쪽

복습 사화 순서 무오 → 갑자 → 기묘 → 을사 · 사림은 중종 때 주도권 → × (선조 때)

16세기 중반 동아시아	
일본	**도요토미 히데요시** 통일 →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 진출하려고 침략 준비
명	환관 횡포, 몽골·왜구 침입 → 사회 불안
조선	양반 사회 분열로 정치 혼란, **군역 제도 문란** → 국방력 약화

★ 임진왜란 1592	
1592.4	부산진·동래성 함락(동래 부사 **송상현** 항전) → **충주**에서 **신립** 패배
1592.5	한양 점령
1592.6	선조 **의주** 피란, 명에 지원군 요청
1592.7	**이순신**: 처음 **옥포** 승리, 사천·당포·**한산도** → 서남해 **제해권**
진주 대첩	**김시민** 진주성 승리 ★ **1592~1593으로만 알기**
1593.1	조명 연합군 **평양 탈환**
1593.2	**권율 행주 대첩**

의병 = 나라가 위험할 때 백성이 스스로 의로운 뜻으로 일으킨 병사 → 패배를 거듭하던 조선이 전세를 뒤집기 시작. **곽재우** 붉은 옷 '홍의장군'(의령) · 승려 **사명대사**(유정, 금강산)·**서산대사**(휴정, 묘향산) · **정문부**(함경도 길주)

의병: 유생·농민·승려가 익숙한 지리 활용 → 일본군 **육상 보급로** 차단 · **수군**: 옥포·사천·당포·한산도 승리 → 서남해 제해권, **곡창 지대**(충청·전라) 수호, **해상 보급로** 차단

왜란의 극복: 명 지원군 → 조명 연합군 평양 탈환 → 진주성(김시민)·행주산성(권율) 승리 → **일본군의 휴전 제안**

정유재란(1597): 휴전 협상 결렬 → 재침략 → **명량** 해전 승리 → 히데요시 사망, 일본군 철수 → **노량** 해전 승리 → 7년 전쟁 끝(1598)

왜란의 영향	
조선	토지 황폐화, 재정·인구 감소, **신분 질서 혼란**, 문화유산 약탈·소실 / 철포·탄약 제조 기술, **담배** 등 작물 전래
중국	명의 국력 약화, **여진의 성장**
일본	약탈한 문화유산, 포로로 끌고 간 **성리학자·기술자**로 문화 발전, **도쿠가와 이에야스** 에도 막부

조선 통신사: 전쟁 후 일본이 국교 회복 원함 → 선조가 **사명대사**(유정)에게 명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포로 **3,000명** 데려옴 → 통신사 왕래의 계기 =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를 전한 외교 사절단

No.10 광해군의 정치와 호란 138~139쪽

O·X 16세기 중반 명은 환관 횡포, 몽골·왜구 침입으로 사회 불안 → O · 전국 시대를 통일한 **도쿠가와 이에야스**가 전쟁 준비 → × (도요토미 히데요시)

광해군 왜란 후 복구: **토지 대장·호적** 정비, **성곽·무기** 수리

★ **중립 외교**: 명 쇠퇴, 여진 **누르하치**가 **후금** 세우고 명과 대립 → 후금이 명 침략, 명이 군사 지원 요청 → 출병을 피하려던 광해군이 **강홍립**에게 **1만 3,000명**, "형세를 보아 앞으로 일을 정하라" 밀명 → **사르후 전투**에서 조·명 연합군 대패 →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 → 실리적 중립 외교로 **후금과의 전쟁 피함**

인조반정(1623): 광해군의 외교 정책, 이복동생 **영창 대군** 사살, 어머니 **인목 대비** 폐위로 **서인**과 대립 →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**인조** 추대

호란의 '호' = 오랑캐

	정묘호란 1627	**병자호란 1636**
나라	후금	청 (후금이 국호 변경)
원인	★ 인조·서인의 **친명배금**	후금이 **군신 관계** 요구 → 주화론·척화론 대립 → **척화론** 우세
전개	**황해도**까지 진격, 인조 → **강화도**, 의병(**정봉수·이립**) 과 대항	인조 → **남한산성**(왕실은 강화도) → **주화론** 우세
결과	**형제** 관계 화의, 후금 철수	인조가 **삼전도**에서 굴욕적 화의, **왕자·신하·백성**이 인질로, 많은 공물

★ 기말 서술형 · 선생님 체크 — 청과의 화의, 두 신하의 주장

신하 1 · 척화론 명이 우리를 도운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의리와 명분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.

신하 2 · 주화론 청과 싸워 이길 수 없다.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.

북벌론: 청을 정벌해 **치욕을 씻자** → 청에서 돌아와 왕위에 오른 **효종**의 북벌 준비(성곽·무기 정비, 군대 양성) → 백성 생활고, 청 국력 강성, 효종 죽음으로 중단 · **북학론**: 청과 교류 활성화 → 청 문물 수용

✎ 서술형 예상 (추측 · 답은 학습지 내용)

조광조 개혁 3가지 → 소격서 폐지, 현량과 실시, 부당한 공신 자격 박탈 주장

사화 순서 → 무오(연산군) → 갑자(연산군) → 기묘(중종) → 을사(명종)

광해군 외교 이름·결과 → 중립 외교, 강홍립 원군 → 후금에 항복, 후금과의 전쟁 피함

정묘호란 배경 → 인조·서인의 친명배금 정책

칠정산 → 세종, 실제 관측 기록 토대 독자적 역법서, 한성 기준 계산

『삼강행실도』 보급 이유 → 그림 + 훈민정음 번역으로 한문 모르는 백성도 쉽게 이해

광해군 복구 정책 → 토지 대장·호적 정비, 성곽·무기 수리

서원 기능 → 덕망 높은 유학자 제사, 성리학 연구, 지방 양반 자제 교육

향약 의의 → 농민을 성리학 윤리로 규율, 사림 영향력 확대

동인·서인 계기 → 훈구 처리 문제 + 이조 전랑 자리 다툼

의병·수군 활약 → 의병 육상 보급로 차단 / 수군 제해권·곡창 지대·해상 보급로

3대 대첩 → 한산도(이순신), 진주(김시민), 행주(권율)

의병장 → 곽재우(홍의장군), 사명대사·서산대사, 정문부

왜란의 영향(조선) → 토지 황폐, 재정·인구 감소, 신분 질서 혼란, 문화유산 약탈·소실, 철포·탄약·담배 전래

병자호란 결과 → 삼전도 굴욕(군신 관계), 인질, 공물

북벌론·북학론 → 청 정벌(효종) / 청과 교류·문물 수용

태종·세종·세조·성종 업적, 3사의 역할 → 위 No.6·No.7 표